

現代의 思惟와 人間 理念

人間 解釋의 現實形態(1)

金基錫

現代의 思惟는 그 자신의 옛던 徵表를 가진다. 希臘에 잇서서 사람들은 實在란 것을 생각했다. 中世紀에 잇서서 사람들은 神에 도라왔고 神의 攝理에 도라왔다. 이 希臘的 遺産 中世的 遺産을 거친 人間의 思惟는 現代에 이르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싸허올리고 잇는가.

現代의 思惟는 運動을 말하고 對立을 말하고 發展을 말한다. 이리하여 現實의 論理生成의 論理로서의 辨證法이란 것을 가르친다. 가장 深遠한 眞實한 眞實한 實在란 무엇인고. 轉滅의 뒤에 오는 久遠한 世界란 옛던 것인고. 여기에서 希臘哲學은 그 자신의 眞率한 出發을 보이면서 아울러 哲學永遠의 課題에 막내었다.

이 希臘流域에서 흐르기 시작한 人間의 思惟는 中世紀에 드러서면서 마침내 깊은 疲勞 심한倦怠에 떠러졌다. 이리하여 그 고달픈 몸을 누인 것이 後世에서 부르는 **소코라**哲學 또는 **스코라**神學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본대 그 자신 流床의 意味를 가지는 人間의 思惟가 한 개의 고요한 觀念에 길이 머물러 잇기를 조와 할 것인가. 이 오랜 睡眠에서 이러나자 그는 때로 經驗主義, 때로 理性論에 기우러지면서 마침내 現代의 現實主義에 까지 내려당고야 말았다.

現代의 思惟는 現實이란 것을 생각한다. 現實이란 것을 規定하고 批判하기에 힘쓴다. 過去의 哲學이 부질 업시 形而上學, 理性主義에 그쳤음을 想起하라. 哲學은 본대 存在의 背後에 어떤 久遠한 實在를 想定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을 에워싼 이 廣大한 世界를 단순히 理性的 世界 意識의 世界로 翻譯해 버려서는 안된다. 存在에 대한 生成, 實在에 대한 現實. 現代의 思惟는 여기에서 이제 바야흐로 한 개의 살진 原理 위에 달리게 된다. 그런데 이 이른바 生成이란 무엇일가. 過去의 哲學을 모라 넓은 意味의 存在의 學이라고 하면 現代의 哲學은 자기를 이 生成의 學現實의 學에 잇서서 主張해야 한다.

사람들은 벌써 오랜 옛날에 잇서서 이 生成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다. 모두

는 본대 『있는것』이 아니고 『되는것』이다. 眞實한 現在는 存在가 아니고 生成이 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이 運動의 論理는 다른 한 개의 思惟인 存在의 論理에 마주서면서 人間의 思惟 우에서 진실로 한 개의 오래인 또 빛나는 줄을 그어 내려왔다. 觀念論에 대한 玄室主義, 生成의 論理로서의 現實主義는 결단코 새로운 論理는 아니다. 人間의 思惟란 것을 흘러 나리는 물줄기로 보면 이 흐르고 자어치는 한 구비 한 구비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과르메니데스』의 思惟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思惟에 만나는 것이 아닐가. 사람들은 現代에 드러서면서 몹시 이 한 개 生成의 論理를 내여 세운다. 人間의 思惟가 現代에 이르러 이리도 심하게 이 生成의 論理에 기우러짐은 무엇 때문이고, 우리들은 그 眞實한 緣由를 아직 모르고 또 그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들어 가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오직 現代의 思惟가 이른바 生成의 論理, 運動의 論理란 것에 잇서서 자기를 세차게 限定 또 主張하고 잇슴을 본다. 그런데 이 生成의 論理란 본대 었던 모양의 構造를 가지고 또 現代에 잇서서 었던 모양의 理解 및 規定을 밧고 잇는 것일가. 우리들은 存在란 것이 잇슴을 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存在에 대하여 運動이란 것을 구별한다. 存在는 그 자신 부단한 流動, 轉變을 보이면서 한 개의 久遠한 運動의 世界를 展開식한다.

世界를 存在의 側面에서 보면 世界는 世界의 運動이 된다. 生成의 論理란 存在 및 그 世界를 이 運動의 過程에 잇서서 把捉하고 說明하는 한 개의 思惟態度에 지나지 안는다. 이 生成이니 運動이니는 었더케 되어서 생기는 것인가. 生成이 存在의 또 그 世界의 가장 根本的인 『얼굴』이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를 生成으로 構成 시키는 地盤이 업서서는 안된다. 生成의 場所 가튼 것으로서 우리들은 時間이란 것을 생각한다. 時間은 一切의 生成이 그 우에서 이러나는 地盤이요, 根源이 된다. 이제 이 時間이 客體로서의 自然 속에 버러질 때 자기를 『運動』으로 限定하고 主體로서의 人間 우에 나타나면서 자기를 『歷史』로 主張하기에 이른다. 이러매로 生成의 論理는 본대 運動의 論理이요, 나아가 時間의 論理, 歷史의 論理의 意味를 가진다. 現代의 思惟가 었더케 만히 運動을 말하고 時間을 말하고 歷史를 말하는가를 보라. 現代의 思惟가 그 오랜 傳統인 觀想諦念에서 버서나 그 자신 行爲의 立場에 오르면서 實在 및 그 世界를 오로지 그 現實 諦念諦念에서 버서나 그 자신 行爲의 立場에 오르면서 實在 및 그 世界를 오로지 그 現實構造에 잇서서 解明하려고 힘쓰는 것은 전연히 이 生成의 論理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여진다. 生成의 論理가 가르치는 이 生成마저 어느 意味의 神의 攝理로 보아 어디까지던지 었던 絶對者의 表現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

들은 生成의 論理의 『아우구스티누스』의 形態라고 부르려고 한다. 生成의 論理에서 말하는 運動을 단순히 對立의 統一로 보아 發展의 論理로서의 辨證法이란 것을 몹시 내여세우는 이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은 生成의 論理의 『헤겔』의 形態라고 부르려고 한다.